

제5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⑤	②	③	③	⑤
6	7	8	9	10
②	④	②	②	③
11	12	13	14	15
①	④	③	②	④
16	17	18	19	20
①	②	⑤	①	③
21	22	23	24	25
②	②	①	④	①
26	27	28	29	30
②	①	④	③	①
31	32	33	34	35
④	⑤	③	⑤	②
36	37	38	39	40
③	⑤	④	④	④
41	42	43	44	45
⑤	③	①	⑤	④
46	47	48	49	50
③	①	⑤	⑤	①

01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 ②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 ③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하였다.
- ④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⑤ 의례 도구로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정답> ⑤

'부여 송국리 유물 특별전'이라는 제목 아래 초대 글이 나와 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하였다. (가)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민무늬 토기와 비파형 동검 등을 통해 당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시대'는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사진은 민무늬 토기의 일종인 '송국리식(송국리형) 토기'].

청동기 시대에는 의례 도구로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 등이 제작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사람들이)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산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 ②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 ③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오수전: '오수(五銖)'의 두 글자가 표시된 중국의 화폐, 한 무제 때 처음 주조되어 위진 남북조, 수대에 걸쳐 사용되었다(초기에는 동전이었던가 후대에는 철전도 주조).

**화천(貨泉): 중국 왕망 대(기원후 8~23) 신나라 때부터 제조된 화폐(동전)

- ④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02 - 위만

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연(燕)의 (가)이/가 망명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 (가)이/가 망명자들을 피어내어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준왕에게 사람을 보내 “한의 군대가 열 갈래로 쳐들어오니 [왕궁에] 들어가 숙위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속이고 도리어 준왕을 공격하였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웠다.
- ②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 ③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 ④ 지방의 여러 성에 욱살, 처려근지 등을 두었다.
- ⑤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영토를 빼앗겼다.

정답> ②

'연(燕)의 (가)이/가 망명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이/가 망명자들을 피어내어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준왕에게 사람을 보내, 한의 군대가 열 갈래로 쳐들어오니 [왕궁에] 들어가 숙위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속이고 도리어 준왕을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위만(衛滿)(?~?)'임을 알 수 있다(기원전 194). 참고로 위만을 앞서 전국 시대(기원전 3세기 초)에 연이 고조선 서쪽(서방 2천여 리)을 점령한 뒤 연에 속하게 된 고조선 지역 토착 세력의 후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고연인(故燕人)].

위만(?~?)은 주변의 진번과 임둔*을 복속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구체적 시기는 불확실).

*위만 조선 멸망 후(기원전 108) 위만에게 복속된 이 옛 지역에 다시 진번(군)과 임둔(군)이 설치된다(명목상으로는 설치되었다는 설 있음).

오답 해설>

- ①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운 고조선의 인물은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재위 ?~기원전 108)이다.
- ③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한 인물은 고국천왕(재위 179-197, 제9대)이다(194, 고국천왕 16).
- ④ 지방의 여러 성에 욱살, 처려근지 등(의 지방관 또는 지방장관)을 둔 나라는 고구려이다.
- ⑤ 연의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고조선이 영토(고조선 서방 2천여 리)를 빼앗긴 것은 기원전 3세기 초의 일이다.

03 - 신라 진흥왕(마운령비, 황초령비)

3.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불국사 삼층 석탑을 건립하였다.
- ②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다.
- ③ 마운령, 황초령 등에 순수비를 세웠다.
- ④ 금관가야를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하였다.
- 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정답> ③

삼국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신라본기'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6년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점(545), '11년에 이사부가 도살성과 금현성을 점령'한 점(550), '27년에 황룡사를 완공한' 점(566)*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검색창에 들어갈 왕은 신라의 제24대 왕인 진흥왕(재위 540-576)임을 알 수 있다.

*황룡사는 창건 이후에도 중건 공사가 계속 이어져 완공 시기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다.

진흥왕은 재위 29년인 568년에 마운령과 황초령에 순수비를 세웠다(마운령비, 황초령비).

오답 해설>

- ① 불국사 삼층 석탑(석가탑)이 건립된 것은 경덕왕 10년인 751년의 일이다.
- ② 첨성대를 세운 것은 신라 선덕 여왕 대(재위 632-647)의 일이다(633(선덕 여왕 2) 혹은 647(선덕 여왕 16)).
- ④ 금관가야를 복속하여 영토를 확대한 것은 법흥왕 19년인 532년의 일이다.
- 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도읍인 경주에) 설치한 것은 지증왕 10년인 509년의 일이다.

04 - 초기 국가, 옥저와 삼한

4.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 곁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을 해서 …… 뼈만 추려 곁 속에 안치하였다. 온 집 식구를 모두 하나의 곁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나무를 깎아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

-『삼국지』동이전-

(나)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삼국지』동이전-

- ① (가) -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 ② (가) - 목지국 등 많은 소국들로 이루어졌다.
- ③ (나) -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④ (나) -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⑤ (가), (나) -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별도로 주관하였다.

정답> ③

(가)에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 곁*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사람이 죽으면 모두 가매장을 해서 …… 뼈만 추려 곁 속에 안치하였다. 온 집 식구를 모두 하나의 곁 속에 넣어 두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나무를 깎아 생전의 모습과 같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가리키는 나라는 골장제(가죽공동묘제) 풍습을 갖고 있던 초기 국가, 옥저임을 알 수 있다.

*곁(櫛): 널[관]을 넣기 위해 따로 짜 맞춘 매장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나)에서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가리키는 나라는 삼한임을 알 수 있다.

삼한에는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 ② 목지국 등 많은 소국들로 이루어졌던 나라는 삼한, 그중에서도 마한이다.
- ④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 ⑤ 여러 가(加)들이 사출도를 별도로 주관한 나라 역시 초기 국가, 부여이다.

05 - 가야

5. (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②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두었다.
- ③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 ④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 ⑤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정답> ⑤

'(가),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추진'이라는 제목 아래 '문화재청은 (가)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기에는 김해 대성동, 고령 지산동, 함안 말이산 등 7개 고분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가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가야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오답 해설>

- 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 무령왕 대(재위 501-523, 제25대)의 일이다.
- ② 집사부를 비롯한 14부를 둔 나라는 통일 신라이다(신문왕 대 완성).
- ③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 ④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운 나라는 백제이다(663, 백강 전투).

06 -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6.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은?

[1점]

국보 제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千佛) 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연가(延嘉) 7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②

'국보 제119호인 이 불상은 고구려의 승려들이 만들어 유포한 천불(天佛) 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의령에서 출토되었다. 연가(延嘉) 7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불상'은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539, 고구려 안원왕 9).

오답 해설>

① 국립 중앙 박물관 소장의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오른팔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채 왼손을 뒤를 짚는 윤왕좌(輪王坐) 자세[전륜성왕(轉輪聖王)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화려한 보관을 쓰고 영락(瓔珞)*장식이 덮혀 있는 바 라마교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영락: 구슬을 꿰어서 만든 장신구, 또는 구슬을 꿰어 몸에 달아 장엄하는 기구

③ 발해의 이불명좌상이다. 석가불(석가여래불)과 다보불(다보여래불)이 만나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불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신라의 경주 구황동 금제 여래 좌상이다(국보 제79호). 국보 제80호로 경주 구황동 금제 여래 입상도 있다. 경주 황복사지 삼층 석탑(국보 제37호) 해체 수리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 금제 여래 좌상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것으로 불상은 순금으로 만들었으나 광배와 대좌는 금동으로 따로 주조하여 결합시킨 것이다. 8세기 초 통일 신라 시대 불상 양식을 잘 보여 준다.

⑤ 신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 삼국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반가 사유상 중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선지로 제시된 것은 복잡한 보관을 쓴 국보 제78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다. 머리에 3면이 둥근 산 모양의 보관(寶冠), 즉 삼산관(三山冠)을 쓴, 국보 제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있다.

07 - 백제 부흥 운동

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정관 16년에 …… 여러 대신들과 건무가 의논하여 개소문을 죽이고자 하였다. 일이 누설되자 개소문은 부병을 모두 불러 모아 군병을 사열한다고 말하고 …… 왕궁으로 달려 들어가 건무를 죽인 다음 대양의 아들 장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

-『구당서』동이전-

(나) 건봉 원년에 …… 개소문이 죽고 아들 남생이 막리지가 되었다. 남생은 아우 남건·남산과 화목하지 못하여 각자 봉당을 만들어 서로 공격하였다. 남생은 두 아우에게 쫓겨 국내성으로 달아났다.

-『구당서』동이전-

- 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② 당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하였다.
- ③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 ④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 ⑤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정답> ④

(가)에서 '정관 16년에 …… 여러 대신들과 건무가 의논하여 개소문을 죽이고자 하였다. 일이 누설되자 개소문은 부병을 모두 불러 모아 군병을 사열한다고 말하고 …… 왕궁으로 달려 들어가 건무를 죽인 다음 대양의 아들 장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막리지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건무(建武)는 고구려 영류왕(재위 618-642, 제27대)으로,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연개소문(?~665)이 642년(영류왕 25)에 정변을 일으켜 집권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에서 '건봉 원년에 …… 개소문이 죽고 아들 (천)남생(?~679)이 막리지가 되었다. 남생은 아우 남건·남산과 화목하지 못하여 각자 봉당을 만들어 서로 공격하였다. 남생은 두 아우에게 쫓겨 국내성으로 달아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건봉 원년'은 당 고종의 연호로 666년에 해당한다. 하지만 '천남생묘지'의 기록에 따르면 연개소문이 죽은 해는 665년(고구려 보장왕 24)이다.

복신(?~663)과 도침(?~661)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한 것은 660년(태조 무열왕 7)의 일이다(부여풍이 661년 9월에 일본에서 귀국).

오답 해설>

①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612년(영양왕 23)의 일이다(살수 대첩).

② 당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 설치한 것은 668년(문무왕 8)의 일이다(고구려 멸망 직후). 이후 안동도호부는 신라의 반격으로 만주 이곳저곳으로 옮겨 설치되다가 안록산의 난을 계기로 758년(경덕왕 17)에 최종 폐지되었다.

③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한 것은 675년(문무왕 15)의 일이다.

⑤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임명된 것은 674년(문무왕 14)의 일이다.

08 - 고운 최치원

8.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 ②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 ③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를 지었다.
- ④ 진골 귀족 출신으로 화랑세기, 고승전 등을 저술하였다.
- ⑤ 한자의 음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하였다.

정답> ②

'이곳은 중국 양저우에 있는 이 인물의 기념관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였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격황소서(檄黃巢書)'를 지어 이름을 떨쳤다. 또한 당에서 쓴 글을 모은 계원필경을 남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인물'은 고운 최치원(857~?)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최치원이 '격황소서(檄黃巢書)'(다른 말로 '토황소격문')를 지은 것은 당 희종 광명 2년인 881년(신라 헌강왕 7)의 일이고, 최치원이 귀국한 것은 885년(신라 헌강왕 11)이다.

최치원은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894, 진성 여왕 8).

오답 해설>

①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한 인물은 김춘추(604~661)이다(648, 진덕 여왕 2). 후일 신라의 제29대 태종 무열왕(재위 654~661)으로 즉위하였다.

③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인문표(淸放仁問表)*, 답설인 귀서(答薛仁貴書) 등을 지은 인물은 강수(?~692)이다.

*태종 무열왕의 아들 김인문(629~694)을 보내줄 것을 청하는 글

④ 진골 귀족 출신으로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 등을 저술한 인물은 김대문(?~?)이다(7세기 말과 8세기 초에 활동).

⑤ 한자의 음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를 정리한 인물은 설총(655~?)이다.

09 - 발해(주자감)

9.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대무예가 대장 장문휴를 보내 수군을 거느리고 등주를 공격하였다. 당 현종은 급히 대문예에게 유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게 하고, 태복경 김사란을 보내 신라군으로 하여금 (가)의 남쪽을 치게 하였다.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 ①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 ②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 ③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내신 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정비하였다.
- ⑤ 지방관 감찰을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정답> ②

'대무예가 대장 장문휴를 보내 수군을 거느리고 등주를 공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당 현종은 급히 대문예에게 유주(지금의 중국 북경)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게 하고, 태복경 김사란을 보내 신라군으로 하여금 (가)의 남쪽을 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국가'는 발해임을 알 수 있다. 대무예, 곧 발해의 무왕(재위 719-737)이 당의 등주를 선제공격한 것은 재위 14년인 732년의 일이다. 또 대문예(?~?)는 무왕의 동생으로 당시 무왕과의 알력으로 당에 망명한 상태였고, 태복경 김사란(?~?)을 보내 신라군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을 치게 한 것은 이듬해인 733년(신라 성덕왕 32)의 일이다[성덕왕(재위 702-737, 제33대)].

발해는 (최고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 교육).

오답 해설>

①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한 국가는 고려이다(922, 고려 태조 5). 서경을 복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③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국가는 신라이다(536, 신라 법흥왕 23).

④ 내신좌평 등 6좌평(과 16관등제)의 관제를 정비한 국가는 백제이다(260, 백제 고이왕 27)*. 6좌평 중 내신좌평이 정사암회의 수장 역할을 겸하면서 '상좌평'으로 불렸다.

*고이왕 대로 보지 않고 4~5세기경에 처음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무왕 때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⑤ 지방관 감찰을 위해 외사정을 파견한 국가는 신라이다(673, 신라 문무왕 13).

10 - 궁예

10.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이/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다. 그래서 평양 옛 도읍은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 (가) 이/가 미륵불을 자칭하였다. 머리에 금책(金幟)을 쓰고 몸에는 가사를 걸쳤으며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평보살이라고 불렀다.

—『삼국사기』—

- ① 임존성에서 당군을 격퇴하였다.
- ②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하였다.
- ③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였다.
- ④ 청해진을 통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⑤ 오월(吳越)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의 직을 받았다.

정답> ③

위의 자료에 '(가)이/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다. 그래서 평양 옛 도읍은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아래의 자료에는 '(가)이/가 미륵불을 자칭하면서, 머리에 금책(金幟)*을 쓰고 몸에는 가사를 걸쳤으며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평보살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918)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금책: 금으로 된 머리싸개, 고구려의 왕실 인사나 귀족이 썼다.

궁예는 후고구려 건국 후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였다(904).

오답 해설>

- ① 임존성에서 당군을 격퇴한 인물은 백제의 흑치상지(630?~689)이다(백제 부흥 운동)
- ②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의 제2대 왕인) 신검(재위 935~936)에게 승리한 인물은 고려의 태조 왕건(877~943)이다(936, 고려 태조 19).
- ④ 청해진을 통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한 인물은 신라의 장보고(?~846)이다(828년(흥덕왕 3)~851년(문성왕 13)).
- ⑤ 오월(吳越)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의 직을 받은 인물은 후백제의 견훤(867~936)이다(900). 참고로 고려 태조 왕건도 후당으로부터 검교태보 고려국왕이라는 작위를 받은 적이 있다(932).

11 - 고려 현종 대의 사실(귀주 대첩)

11.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②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 ③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 ④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 ⑤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정답> ①

맨왼쪽 말풍선에 '강조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웅립한 왕에 대해 말해보자'는 말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거란이 침략했을 때 개경을 떠나 나주까지 피란을 가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다'는 말이 나와 있다.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이 왕 때 초조대장경 조판을 시작했다'는 말이 나와 있다. 강조(?~1010)의 정변이 일어난 때는 고려 목종 12년인 1009년으로, 이때 강조는 목종(재위 997~1009, 제7대)을 시해하고 현종(재위 1009~1031, 제8대)을 옹립하였다.

강감찬(948~1031)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현종 10년인 1019년의 일이다(귀주 대첩).

오답 해설>

- ② (몽골) 사신 저고여(?~1225)가 귀국길에 피살된 것은 고려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 ③ 윤관(?~1111)이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고려 숙종 9년인 1104년의 일이다.
- ④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려 태조 25년인 942년의 일이다.

*만부교 사건: 거란에서 보내온 낙타 50필을 개경의 만부교 아래에 매어놓아 굶어 죽게 한 사건이다.

- ⑤ 서희(942~998)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한 것은 거란의 제1차 침입 시의 일이다(993, 고려 성종 12).

12 - 고려 시대의 사회 정책

12. (가) 시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역사 용어 해설

구제도감

1. 기능

(가) 시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 기구로서 전염병 퇴치, 병자 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을 구호하였다.

2. 관련 사료

왕이 말하기를, “도성 내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매장하라.”라고 하였다.

— <보 기> —

ㄱ. 기근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황철요를 간행하였다.
 ㄴ. 개경에 국립 의료기관인 동서 대비원을 설치하였다.
 ㄷ. 호조에서 정한 사창절목에 따라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ㄹ.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구제도감'이라는 제목 아래 기능으로 '(가) 시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 기구로서 전염병 퇴치, 병자 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을 구호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관련 사료로 '왕이 말하기를, 도성 내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매장하라고 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시대'는 고려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고려사』를 살펴보면 고려 예종 4년인 1109년 5월 개경에서 역질이 발생하자 구제도감(구급도감)을 설치한 바 있다. 예종 원년(1106)에 설치된 동서 제위도감, 충목왕 4년(1348)에 설치된 진제도감, 공민왕 3년(1354)에 설치된 진제색도 구제도감과 유사한 기관이다.

ㄴ. 개경에 국립 의료기관인 동서 대비원을 설치한 것은 고려 문종 대이다(1049, 고려 문종 3).

ㄷ.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는 제위보를 운영한 것은 고려 광종 대이다(963, 고려 광종 14).

오답 해설>

ㄱ. 기근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종의 구황서(救荒書)인 구황철요를 간행한 것은 조선 명종 대이다(1554, 명종 9)(흉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책).

ㄷ. 호조에서 정한 사창절목에 따라 사창제를 시행한 것은 조선 고종 대이다(1867, 조선 고종 4). 기존의 환곡제를 개선해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해 농민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시행하였으나 1873년 11월 흥선 대원군의 하야와 함께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다.

13 - 만권당(이제현)

13.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고려의 태자가 배알하니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강희선무사 조양필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20여 년간 군사를 동원하였어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 이는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②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
 ③ 이제현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④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⑤ 최충현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정답> ③

'고려의 태자가 배알하니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강희선무사 조양필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20여 년간 군사를 동원하였어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다. …… 이는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의 태자가 몽골의 제5대 칸이자 원의 시조(원 세조)인 쿠빌라이(재위 1260~1294, 칭기즈 칸 손자)를 배알한 것은 1259년(고종 46)의 일이다. 여기서 고려의 태자는 곧 원종(재위 1260~1274, 제24대)이다.

(일종의 독서당인) 만권당이 (상왕이 된 충선왕에 의해) 원의 연경[지금의 북경]에 세워진 것은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의 일이다. 충선왕은 익재[역옹] 이제현(1287~1367)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을 만권당으로 불렀다.

오답 해설>

- ①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 ②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 것은 고려 명종 3년인 1173년의 일이다(김보당의 난).
- ④ 묘청(?~1135)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 천도를 주장한 것은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서경 천도 운동).
- ⑤ 최충현(1149~1219)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한 것은 고려 명종 26년인 1196년의 일이다(이의민을 숙청하고 집권한 직후).

14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14.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국보 제18호인 (가)은 고려 시대의 목조 건물로, 배흘림 기둥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국보 제45호인 소조 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정답> ②

'국보 제18호인 (가)은 고려 시대의 목조 건물로, 배흘림기둥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건물 내부에는 국보 제45호인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주심포 양식*으로 된 고려 시대의 또다른 목조 건축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있다.

*주심포(柱心包) 양식: 공포(栱包)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을 가리킨다. 다포, 익공계보다 오래된 양식이다. 여기서 공포(栱包)란 처마 끝의 하중을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 같은 데 짜맞추어 댄 나무 부재이다.

오답 해설>

- ①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은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지어진 건축물이다(보물 제801호).
- ③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충렬왕 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다(1308, 충렬왕 34, 국보 제49호). 참고로 수덕사는 삼국 시대 백제 말인 7세기 중엽에 창건되었다.
- ④ 구례 화엄사 각황전은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지어진 건축물이다(국보 제67호).
- 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국보 제15호). 13세기 초 내지 중반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15 -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

15.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 주전도감에서 아뢰기를, "백성들이 비로소 동전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 해에 은병을 화폐로 삼았다. 은 1근으로 만들되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으며 속칭 활구라 하였다.

○ 저포, 은병으로 가치를 표준하여 교역하고 작은 일용품은 쌀로 가격을 계산하여 거래한다. 백성들은 그런 풍속에 익숙하여 편하게 여긴다.

- ① 책문 후시를 통한 교역이 활발하였다.
- ②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 ③ 감자, 고구마 등이 구황 작물로 재배되었다.
- ④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 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정답> ④

위의 자료에 '주전도감에서 아뢰기를, 백성들이 비로소 동전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 편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또한 이 해에 은병을 화폐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은 1근으로 만들되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들었으며 속칭 활구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활구(은병)가 만들어진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

아래의 자료에는 '저포, 은병으로 가치를 표준하여 교역하고 작은 일용품은 쌀로 가격을 계산하여 거래한다. 백성들은 그런 풍속에 익숙하여 편하게 여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숙종의 적극적인 화폐 유통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후 백성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화폐 사용이 저조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송의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 나오는 자료로, 바로 앞 문장이 '대개 그 풍속이 점포는 없고 오직 한낮에 시장을 벌여 남녀노소, 관리, 공장들이 저마다 가진 것으로 교역하고, 화폐는 쓰지 않았다'이다.

고려 시대에는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개경]의 시전을 감독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목종 대(재위 997-1009, 제7대)로 추정된다(경시서 자체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러다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이르러 경시서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이후 경시서는 조선 초에도 계속 존속되다가 세조 12년(1466)에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사무역(후시 무역) 중 하나인 책문 후시를 통한 교역이 활발하였던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②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감자, 고구마 등이 구황 작물로 재배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난 것도 조선 후기의 일이다.

16 - 삼봉 정도전

16.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 ②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 ③ 지공거 출신으로 9재 학당을 설립하였다.
- ④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⑤ 충청도 지역에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건의하였다.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최근 저술한 조선경국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주례의 6전 체제를 참조하였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였다'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은 삼봉 정도전(1342~1398)임을 알 수 있다. 정도전은 1394년(태조 3)에 조선경국전을 지어 태조에게 바쳤다.

정도전은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불교의 교리를 비판한 불씨잡변을 지었다(1394, 태조 3).

오답 해설>

②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한 인물은 묘청(?~1135)이다.

③ 지공거* 출신으로 9재 학당을 설립한 인물은 최충(984~1068)이다(1055, 고려 문종 9). 일명 '문헌공도', '시중최공도'로 불렸다.

*지공거(知貢舉): 과거 시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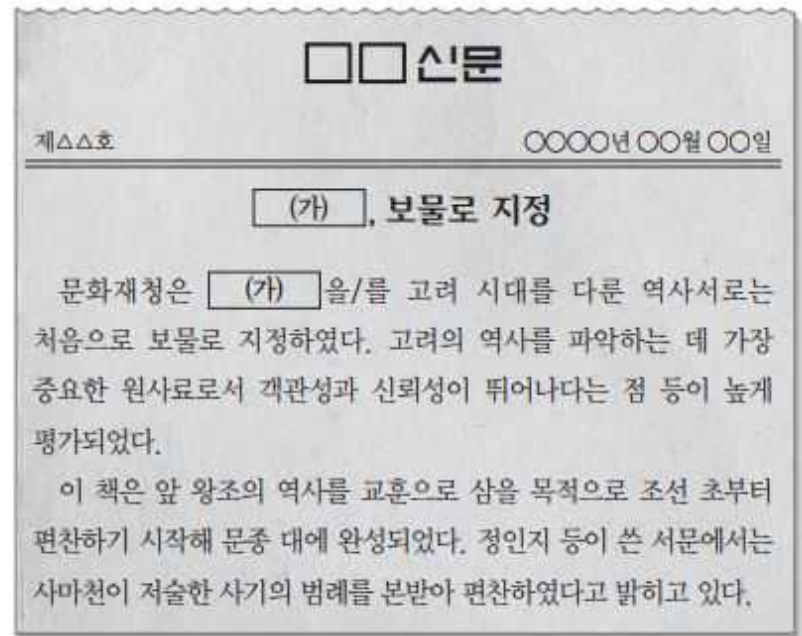
④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인물은 풍기군수를 역임한 주세붕(1495~1554)이다(1543, 조선 중종 38).

⑤ 충청도 지역에 대동법을 실시하자고 건의한 대표적인 인물은 잠곡 김육(1580~1658)이다(1651, 조선 효종 2).

17 - 고려사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② 세가, 열전, 지, 연표 등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 ③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 ④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⑤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다.

정답> ②

'(가), 보물로 지정'이라는 제목 아래 '문화재청은 (가)을/를 고려 시대를 다룬 역사서로는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자료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앞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조선 초부터 편찬하기 시작해 문종 대에 완성되었으며, 정인지 등이 쓴 서문에서는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범례('기전체')를 본받아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말하는 '기전체' 역사서는, 조선 문종 원년(1451)에 편찬된 『고려사』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듬해인 문종 2년(1452)에 편찬된 『고려사절요』는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또 『고려사』 139권 75책 목판본이 2021년 2월 17일자로 보물 제 2115-4호로 지정되었다.

기전체 사서는 세가, 열전, 지, 연표 등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역사서는 유득공의 발해고이다(1784, 조선 정조 8).

③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역사서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1193, 고려 명종 23).

④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한 역사서는 보각국사 일연의 삼국유사이다(1285, 고려 충렬왕 11).

⑤ 단군 조선[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는 동국통감이다(1485, 조선 성종 16). 편년체 사서이다.

18 - 조선 태종(사간원 독립)

18.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일전에 좌정승 하륜이 나에게 국정의 처리를 육조에서 직계하자고 건의하였다. 지금까지는 거를이 없어 논의하지 못했으나, 이제 경들이 의논하도록 하라.



- ① 금속 활자인 갑인자를 제작하였다.
- ②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 ③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 ④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문하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정답> ⑤

'일전에 좌정승 하륜(1347~1416)이 나에게 국정의 처리를 육조에서 직계하자고 건의하였다. 지금까지는 거를이 없어 논의하지 못했으나, 이제 경들이 의논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왕'은 조선의 제3대 국왕인 태종(재위 1400~1418)임을 알 수 있다. 6조 직계제가 시행된 것은 재위 14년인 1414년의 일이다.

문하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킨 것은 태종 원년인 1401년의 일이다(대신 견제책).

오답 해설>

- ①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제작된 것은 세종 16년인 1434년의 일이다. 태종 때 제작된 금속 활자로는 계미자가 있다(1403, 태종 3).
- ②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창설된 것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의 일이다.
- ③ 인재 양성을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 ④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한 것은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19 - 을사사화

19.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대사헌 등이 아뢰기를, "정국공신은 책봉된 지 오래 되었지만 폐주(廢主)의 총신(寵臣)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반정 때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니 삭훈해야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나) 김효원과 심의겸의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다. 당초 심의겸이 김효원을 비방하자 김효원도 심의겸을 비난하여 각기 봉당이 나뉘어 대립하였다.

- ①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 ②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 ③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 ④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광필 등이 처형되었다.

정답> ①

(가)에 '대사헌 등이 아뢰기를, 정국공신은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폐주(廢主)의 총신(寵臣)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반정 때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런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니 삭훈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정암 조광조(1482~1519)의 위훈 삭제 주장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1519, 중종 14).

(나)에는 '김효원과 심의겸의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다. 당초 심의겸이 김효원을 비방하자 김효원도 심의겸을 비난하여 각기 봉당이 나뉘어 대립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사람이 김효원(1542~1590)을 지지하는 동인(신진 사람)과 심의겸(1535~1587)을 지지하는 서인(기성 사람)으로 나뉜 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575, 선조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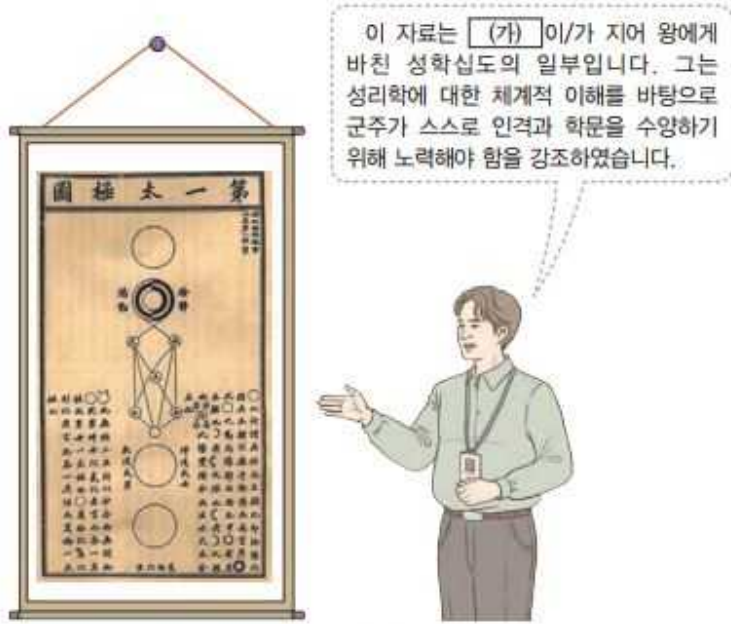
외척 간의 대립으로 (대운인) 윤임(1487~1545)이 제거된 것은 을사사화 때의 일이다(1545, 명종 원년).

오답 해설>

- ②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그의 제자) 김일손(1464~1498) 등이 화를 입은 것은 무오사화이다(1498, 연산군 4).
- ③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된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 성균관 앞 반수교 옆에 세워졌다.
- ④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한 것은 숙종 15년(1689)의 일이다(기사환국). 남인이 집권하였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광필(1454~1504), 정여창(1450~1504) 등이 처형된 것은 갑자사화이다(1504, 연산군 10).

20 - 퇴계 이황

2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②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 ③ 예안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④ 유학 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하였다.
- ⑤ 가례집람을 저술하여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다.

정답> ③

'이 자료는 (가)이/가 지어 왕에게 바친 성학십도의 일부이다. 그는 성리학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군주가 스스로 인격과 학문을 수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은/는 퇴계 이황(1501~1570)임을 알 수 있다. 성학십도가 저술된 것은 선조 원년인 1568년의 일이다.

이황은 (경북 안동 예안에서) 예안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1556, 명종 11).

오답 해설>

- 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 ②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인물은 희현당[보한재] 신숙주(1417~1475)이다(1471, 성종 2).
- ④ 유학 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한 인물은 서계 박세당(1629~1703)이다(1680~1693).
*약 13년이 소요되었다. 대학사변록(1680), 중용사변록(1687), 논어사변록(1688), 맹자사변록(1689), 상서사변록(1691), 모시사변록(1693) 순으로 완성되었다.
- ⑤ 가례집람을 저술하여 예학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인물은 사계 김장생(1548~1631)이다(1685, 숙종 11).

21 - 인조반정과 병자호란

21.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가) 왕은 군사를 일으켜 왕대비를 받들어 복위시킨 뒤 경운궁에서 즉위하였다. 광해군을 폐위시켜 강화로 내쫓고 이이첨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 (나)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에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였다. 왕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 (다) 왕은 김상룡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 강화로 피난해 들어갔다. 이에 김류, 이귀, 최명길, 김자점 등의 신하들이 모두 따라갔다.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가) - (나)

정답> ②

(가)에 '왕은 군사를 일으켜 왕대비를 받들어 복위시킨 뒤 경운궁에서 즉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광해군을 폐위시켜 강화로 내쫓고 이이첨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623년의 인조반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왕대비'는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 대비(1584~1632)이다.

(나)에서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에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인조가 병자호란 때 청 태종(홍타이지)에게 항복의 예('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 또는 '삼궐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 '삼전도의 굴욕')를 올린 사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637.1, 인조 15).

(다)에서 '왕이 김상룡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 강화로 피난해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김류, 이귀, 최명길, 김자점 등의 신하들이 모두 따라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인조가 청 태종의 침략을 보고받고 강화도로 피란하려다 청군에 의해 길이 끊기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관련된 자료이다(1636.12, 인조 14).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다)-(나)'가 된다.

22 - 진산 사건(신해박해)

22.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진산의 윤지충은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의 장례에도 신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태연하였으니, 정말 흉악한 자입니다.

근심과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사학(邪學)을 따르는 죄인을 처벌하여 경계로 삼으라.

1746	1776	1801	1834	1865	1876
(가)	(나)	(다)	(라)	(마)	
숙대전 간행	정조 즉위	공노비 해방	헌종 즉위	대전회통 편찬	강화도 조약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진산의 윤지충이 조상의 신주를 불사르고, 어머니의 장례에도 신주를 모시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태연하였으니, 정말 흉악한 자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근심과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사학(邪學)을 따르는 죄인을 처벌하여 경계로 삼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말풍선)는 조선 정조 15년인 1791년에 발생한 '진산 사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진산 사건'이란 당시 전라도 진산(珍山)의 두 선비 권상연(1750~1791), 윤지충(1759~1791)이 부모의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태워 발생한 사건으로, '신해박해'라고도 부른다.

연표에서는 정조 즉위(1776)와 공노비 해방(1801) 사이인 '(나)' 시기에 해당한다.

23 - 조선 효종(나선 정벌)

23.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②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③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④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 ⑤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흘양전을 폐지하였다.

정답> ①

1/3에 '청에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온 왕자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3에는 '왕이 된 그는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3/3에는 '하지만 냉혹한 국내외의 현실로 북벌은 미완의 꿈으로 남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말하는 '왕'은 조선의 제17대 왕인 효종(재위 1649-1659)임을 알 수 있다.

효종 대에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을 위한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두 차례, 각 1654(변급 통솔)/1658(신류 통솔)].

오답 해설>

- ②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된 것은 조선 정조 17년인 1793년의 일이다.
- ③ 청과의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것은 조선 숙종 38년인 1712년의 일이다.
- ④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된 것은 조선 영조 46년인 1770년의 일이다.
- ⑤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흘양전이 폐지된 것은 조선 세조 12년인 1466년의 일이다.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한 직전법의 실시로 폐지되었다.

24 - 조선 후기의 모습(상품 작물 재배)

24.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우리나라 은화는 연경과의 무역에 모두 써버린다. 하늘이 낸 이 보화를 가지고 비단·식물·그릇·사치품 따위를 멀리서 사들여 와 하루도 못가서 소비해 버린다. 나라에서 생산하는 은이 부족한 까닭에, 일본 은을 들여다가 간신히 채우려고 하지만 나라의 은이 모두 바닥이 난다. 병화(兵禍)가 생긴다면 장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성호사설』-

- ① 엽포의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 ② 계해약조의 문서를 작성하는 관리
- ③ 과전법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는 관원
- ④ 고추, 담배를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농민
- ⑤ 화통도감에서 화약 무기를 시험하는 군인

정답> ④

'우리나라 은화는 연경과의 무역에 모두 써버린다. 하늘이 낸 이 보화를 가지고 비단·식물·그릇·사치품 따위를 멀리서 사들여 와 하루도 못가서 소비해 버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나라에서 생산하는 은이 부족한 까닭에, 일본 은을 들여다가 간신히 채우려고 하지만 나라의 은이 모두 바닥이 난다. 병화(兵禍)가 생긴다면 장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화폐 유통에 비판적이었던 성호 이익(1681~1763)의 폐전론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익은 소농민을 몰락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화폐 유통이라고 보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고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많아졌다.

오답 해설>

- ① 엽포(지금의 울산)의 왜관이 열린 것은 조선 전기의 일이다 [3포 개항, 1426(세종 8)].
- ② (조선과 일본 사이에) 계해약조가 맺어진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
- ③ 과전법이 시행된 것은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의 일이다.
- ⑤ (최무선의 건의로) (화약 및 화기의 제조를 맡아보는 임시 관청으로) 화통도감이 설치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25 - 조선 영조(준천사 신설)

25.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왕은 늘 양역의 폐단을 염려하여 군포 한 필을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하여 각 도의 어염·은결의 세를 걷어 보충하니, 그 은택을 입은 백성들은 서로 기뻐하였다. 이런 시책으로 화기(和氣)를 끌어 올려 대명(大命)을 이을 만하였다.

- ① 준천사를 신설하여 홍수에 대비하였다.
- ② 대외 관계를 정리한 동문회고를 간행하였다.
- ③ 전제상정소를 두어 전분 6등법을 제정하였다.
- ④ 총융청과 수어청을 창설하여 도성을 방어하였다.
- 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두었다.

정답> ①

'왕은 늘 양역의 폐단을 염려하여 군포 한 필을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하여 각 도의 어염·은결의 세를 걷어 보충하니, 그 은택을 입은 백성들은 서로 기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런 시책으로 화기(和氣)를 끌어올려 대명(大命)을 이을 만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조선 영조 26년인 1750년에 시행된 균역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조는 재위 36년인 1760년에 준천사를 신설하여 홍수에 대비하였다. 당시 한성의 개천(지금의 청계천)의 홍수 피해가 막심하였다.

오답 해설>

- ② 대외 관계를 정리한 동문회고가 간행된 것은 조선 정조 12년인 1788년의 일이다.
- ③ 전제상정소가 설치되고 전분6등법이 제정된 것은 조선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 토지의 비옥도를 기준으로 면적의 차이(6등분)를 두었다.
- ④ 총융청과 수어청이 창설되어 도성을 방어한 것은 조선 인조 때의 일이다[각 1624(인조 2)/1626(인조 4)].
- 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둔 것은 조선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안핵사 환재 박규수의 건의).

26 - 동국지도

26.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한국사 과제 안내문

다음 지도 및 지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지도 및 지리서	설명
택리지	(가)
동국지도	(나)
대동여지도	(다)
동국여지승람	(라)
조선방역지도	(마)

◆ 조사 방법: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

◆ 제출 기간: 2021년 ○○월 ○○일~○○월 ○○일

◆ 분량: A4 용지 1장 이상

- ① (가) - 팔도지리지를 참고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 ② (나) - 정상기가 100리 척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 ③ (다) - 한치윤이 500여 종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 ④ (라) - 북거총론에서 거주지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 ⑤ (마) - 목판으로 인쇄되었으며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

정답> ②

'한국사 과제 안내문'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 지도 및 지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도 및 지리서로 '택리지, 동국지도, 대동여지도, 동국여지승람, 조선방역지도'가 제시되어 있다.

동국지도는 정상기(1678~1752)가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하여 제작한 지도이다(1740년대). 참고로 조선 세조 9년(1463)에도 정척과 양성지 등에 의해 '동국지도'가 제작된 일이 있는 것처럼 흔히 '동국지도'라 함은 속종 대까지는 전국을 그린 지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었고, 영조 대 이후부터는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오답 해설>

① 택리지는 실학자 청담 이종환(1690~1752)이 현지 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지리서이다(1751, 영조 27). '팔도지리지를 참고하여 성종 때 완성된' 것은 동국여지승람이다(④ 해설 참고).

③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1804~1866)가 제작한 지도이다(1861, 철종 12).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여 거리를 알 수 있게 하였고, 역참, 봉수 등의 주요 시설물을 기호로 표기하여 다양한 지리 정보를 전달하였다. 또 총 22첩의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분첩절첩 방식으로 제작). '한치윤(1765~1814)이 500여 종의 자료를 참고하여 편찬한' 것은 해동역사이다(1814, 순조 14).

④ 동국여지승람은 노사신, 양성지 등이 팔도지리지 등을 참고하여 성왕 때 완성한 지리지이다(1481, 성종 12). 각 지역의 지도와 지리, 풍속 등을 총 50권에 수록하였고, 이후 증보되어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편찬되었다(1530, 중종 25). '북거총론에서 거주지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택리지이다. 택리지는 사민총론(四民總論), 팔도총론(八道總論), 북거총론(卜居總論), 총론(總論)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북거총론에서 살만한 주거 입지의 조건으로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⑤ 조선방역지도는 1557년(명종 12) 또는 1558년(명종 13)경에 제작된 지도이다(국보 제248호). 전국 8도의 주현과 수영 및 병영을 표시하였다. '목판으로 인쇄되었으며 1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대동여지도이다.

27 - 담원 홍대용

27.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이/가 과학 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에 조예가 깊어 기존의 혼천의를 개량했으며, 그의 학문은 담헌서로 정리되어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 과학 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

- ①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 ②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 ③ 자동 시보 장치를 갖춘 자격루를 제작하였다.
- ④ 사상 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하였다.
- ⑤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를 저술하였다.

정답> ①

'(가), 과학 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라는 제목 아래 '(가) 이/가 과학 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천문학에 조예가 깊어 기존의 혼천의를 개량했으며, 그의 학문은 담헌서로 정리되어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담헌 홍대용(1731~178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무한 우주론, 지구 구형설, 지전설 등을 주장하였다.

오답 해설>

② [요하네스 테렌츠(1576~1630)의]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1789, 정조 13).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 사용되었고, 특히 1794년부터 쌓기 시작한 수원성 축조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③ 자동 시보 장치를 갖춘 자격루를 제작한 인물은 장영실(1385?/1390?~1450?)이다(1434, 세종 16).

④ 사상 의학을 정립한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한 인물은 동무 이제마(1837~1900)이다(1894, 고종 31).

⑤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요(세계 지리서)를 저술한 인물은 해강 최한기(1803~1877)이다(1857, 철종 8). 여기서 최한기는 우주 현상과 지리, 문화 현상을 상술하였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함께 주장하였고, 자전과 공전설이 코페르니쿠스의 것임을 밝혔다.

28 - 홍경래의 난

28.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 ② 조병갑의 탐학이 계기가 되었다.
- ③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 ④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 ⑤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답> ④

왼쪽의 말풍선에 '적도의 우두머리는 성은 홍이고 이름은 알 수 없으며, 우군칙·오용진 등이 그의 부하라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또한 선천 부사 김익순이 그들에게 항복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적도들을 즉시 토벌하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대화는 조선 순조 11년인 1811년 평안도에서 발생한 홍경래(1771~1812)의 난을 가리킬 수 있다.

홍경래의 난은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오답 해설>

- ① 환재 박규수(1807~1876)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진주[임술] 농민 봉기 때의 일이다(1862, 철종 13).
- ② 조병갑의 탐학이 계기가 된 사건은 동학 농민 운동이다(1894, 고종 31).
- ③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 사건은 임오군란이다(1882, 고종 19).
- ⑤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동학 농민 운동이다. 특히 제2차 봉기 시의 일이다(1894.9).

29 - 척화비

29.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대왕대비께서 전교하기를, "이번에 이렇게 만동묘를 철폐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모시는 것에 대해서 선현의 혼령이 알게 되더라도 올바른 예법이라고 여기고 유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하기를, "만약 그 지위가 아닌데도 국정에 관여하는 자는 단지 그 지위와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특별히 그를 호조 참판에 발탁하고 총애하였다.

- 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 ② 서재필 등이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 ③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 ④ 김옥균 등 개화 세력이 정변을 일으켰다.
- 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정답> ③

(가)에 '대왕대비*께서 전교하기를, 이번에 이렇게 만동묘를 철폐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모시는 것에 대해서 선현의 혼령이 알게 되더라도 올바른 예법이라고 여기고 유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만동묘를 철폐한 것은 고종 2년인 1865년의 일이다(1865.5).

*[신정]익황후(1808~1890), 이른바 '조대비'를 가리킨다. 순조의 세자인 익종의 왕비이자 현종의 어머니이다. 1866년 2월에 수렴청정을 거두었다[철령].

(나)에서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하기를, 만약 그 지위가 아닌데도 국정에 관여하는 자는 단지 그 지위와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은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특별히 그를 호조 참판에 발탁하고 총애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면암 최익현(1833~1906)이 흥선 대원군을 탄핵하여 하야시킨 것은 1873년(고종 10) 11월의 일이다(고종의 친정 체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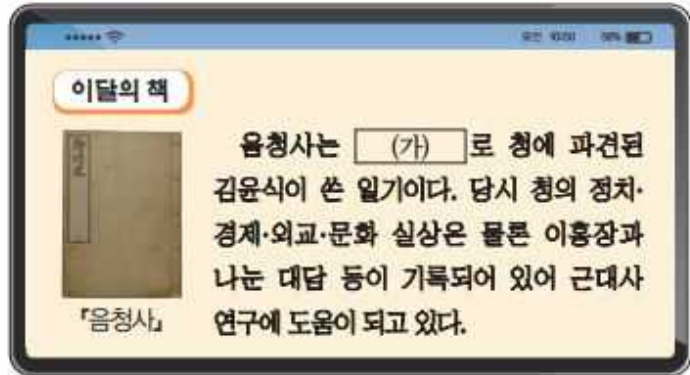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진 것은 1871년(고종 8) 5월의 일이다(신미양요).

오답 해설>

- 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5월의 일이다.
- ② 서재필 등이 독립신문을 발행한 것은 고종 33년인 1896년 4월의 일이다.
- ④ 김옥균 등 개화 세력이 정변을 일으킨 것은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의 일이다.
- 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된 것은 고종 19년인 1882년 8월의 일이다.

30 - 영선사

30.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기기창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 ② 회담 겸 쇄환사로 파견되었다.
- ③ 조선책략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 ④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하였다.
- ⑤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출국하였다.

정답> ①

'음청사는 (가)로 청에 파견된 김윤식이 쓴 일기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당시 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실상은 물론 이홍장과 나눈 대담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근대사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는 '영선사'임을 알 수 있다. 온건 개화파인 윤양 김윤식(1835~1922)은 고종 18년인 1881년 9월 청에 영선사로 파견된 바 있다(~1882.11). 이듬해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의 여파로 조기 귀국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기기창(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 설립되었다(1883.3).

오답 해설>

② '회담 겸 쇄환사'란 '일본에서 보낸 국서에 회답 국서를 전하고 피로인을 쇄환하기 위해 파견한 사절'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자 일본의 요청으로 파견된 사신 일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1607년(선조 40) 정사(正使) 여우길 일행이 회담 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이후 1617년(광해군 9)과 1624년(인조 2) 두 차례 더 파견된 적이 있다[인조 14년(1636)에 이르러 통신사라는 칭호를 다시 사용].

③ 조선책략을 가져와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은 김홍집(1842~1896)이다(1880.9). 김홍집이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주일 청국 외교관[참찬]이었던 황준헌(1848~1905)에게서 받은 책으로, 고종에게 복명하면서 바쳤다(1880.9). 참고로 조선책략에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는 외교 정책(사실상 러시아 견제책)이 담겨 있었는데, 위정척사파 유생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받았다.

④ 민영익(1860~1914), 홍영식(1855~1884), 서광범(1859~1897) 등이 참여한 사절단은 보빙사이다(1883.7.16~1884.5.31).

⑤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일본으로) 출국한 사절단은 조사 시찰단이다(1881.4~윤7). 사실상의 '제3차 수신사'였다.

31 - 운요호 사건

31.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진무사 정기원의 장계에, "초지와 덕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저의 불찰인데, 광정보에서는 군사가 다치고 장수가 죽었으니 저의 죄가 더욱 큼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전교하기를, "병가의 승패는 늘 있는 일이다. 저 흉측한 무리들이 지금 다소 물러가기는 했으나 목전의 방비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 ①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 ②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하였다.
- ③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④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 ⑤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하였다.

정답> ④

'진무사 정기원(1809~?)의 장계에, 초지와 덕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저의 불찰인데, 광정보에서는 군사가 다치고 장수가 죽었으니 저의 죄가 더욱 큼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전교하기를, 병가의 승패는 늘 있는 일이다. 저 흉측한 무리들이 지금 다소 물러가기는 했으나 목전의 방비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초지', '덕진', '광정보' 등의 말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신미양요 때의 일임을 알 수 있다(1871, 고종 8).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5년 9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7월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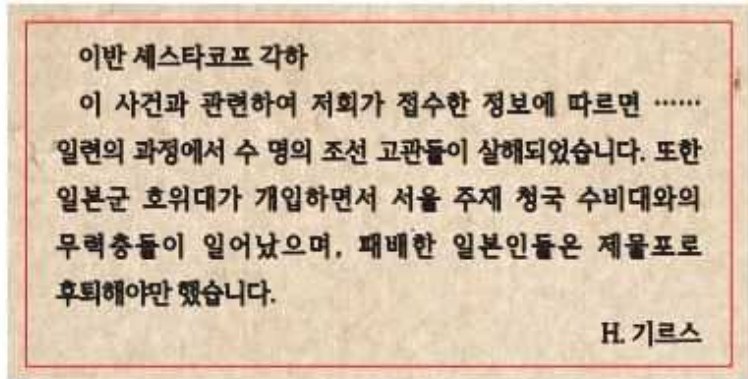
② (프랑스의 극동 함대 사령관인) 로즈 제독(1812~1882)의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한 것은 1866년 10월의 일이다(병인양요 발발).

③ 오페르트(1832~1903)가 (충남 예산에 있는)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

⑤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한 것(12명 중 9명)은 고종 3년인 1866년 2월의 일이다(병인박해). 이후 불과 수개월 사이에 국내 신도 8,000여 명도 학살되었다. 탈출에 성공한 리델 신부(1830~1884)가 텐진에 있던 로즈 제독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참고로 헌종 5년(1839)에 일어난 기해박해에서도 로랑 조제프 마리위스 앵베르 주교와 피에르 모방, 자크 샤스탕 신부 3명이 처형된 바 있다.

32 - 갑신정변(한성 조약)

32.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최익현, 민중식 등이 주도하였다.
- ② 구본신참에 입각하여 개혁이 추진되었다.
- ③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④ 외규장각 건물이 불타고 의궤가 약탈당하였다.
- ⑤ 조선과 일본이 한성 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⑤

'이반 세스타코프 각하'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가 접수한 정부에 따르면 일련의 과정에서 수 명의 조선 고관들이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본군 호위대가 개입하면서 서울 주재 청국 수비대와 무력충돌이 일어났으며, 패배한 일본인들은 제물포로 후퇴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주어진 자료는 고종 21년인 1884년에 발생한 갑신정변을 가리킴을 짐작할 수 있다(188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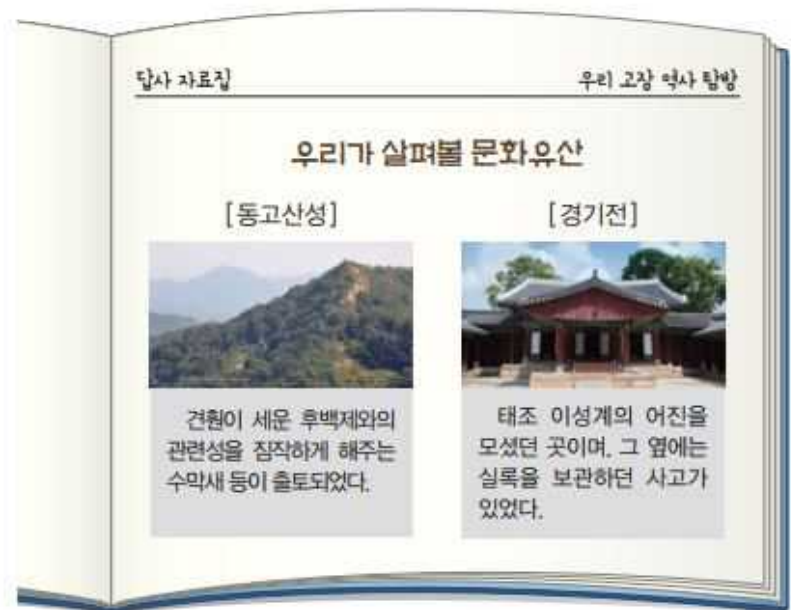
갑신정변을 수습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은 이듬해 1월에 한성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1). 참고로 청과 일본은 같은 해 4월에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4).

오답 해설>

- ① 최익현(1833~1906), 민중식(1861~1917) 등이 주도한 사건은 을사의병 봉기이다(1905~1906).
- ② 구본신참에 입각하여 개혁이 추진된 것은 광무개혁이다(1897~1904).
- ③ 김기수(1831~1894)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것은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체결 때문이다(1876.2). 오고가는 기간을 빼고 약 20일 간 도쿄에 머물면서 개화한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였다. 견문기로 『일동기유(日東記遊)』와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를 남겼다.
- ④ 외규장각 건물이 불타고 의궤가 약탈당한 것은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1866.10).

33 - 전북 전주의 역사적 사실

33. 다음 답사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를 검색한다.
- ② 성왕이 새롭게 도읍지로 삼은 지역을 파악한다.
- ③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체결한 장소를 알아본다.
- ④ 강우규가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한 곳을 찾아본다.
- ⑤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과 맞선 격전지를 조사한다.

정답> ③

'우리가 살퍼볼 문화유산'이라는 제목 아래 '동고산성'과 '경기전'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동고산성은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수막새 등이 출토'되었으며,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셨던 곳이며, 그 옆에는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동고산성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승암산에 있는 산성이고, 경기전(慶基殿)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다.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체결한 장소도 전주(성)이다(1894.5.8, 전주 화약).

오답 해설>

- ① 김헌창(?~822)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는 웅진(지금의 충남 공주)이다(822, 신라 헌덕왕 14).
- ② 성왕(재위 523-554)이 새롭게 도읍지로 삼은 지역은 사비(지금의 충남 부여)이다(538, 백제 성왕 16).
- ④ 강우규(1859~1920)가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척한 곳은 서울[서울역]이다(1919.9.2).
- ⑤ 신립(1546~1592)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과 맞선 격전지는 충북 충주(탄금대)이다(1592.4).

34 - 열강의 이권 침탈

34.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 청일 전쟁 이후 열강이 침탈한 이권 〉

국가	사례
독일	(가)
일본	(나)
미국	(다)
러시아	(라)
프랑스	(마)

- ① (가) - 당현 금광 채굴권
- ② (나) - 경부선 철도 부설권
- ③ (다) - 운산 금광 채굴권
- ④ (라) - 울릉도 삼림 채벌권
- ⑤ (마) - 경인선 철도 부설권

정답> ⑤

'청일 전쟁 이후 열강이 침탈한 이권'이라는 제목 아래 국가별 (열강별) 이권 침탈 사례가 표로 제시되어 있다.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나라는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 이다(1896, 고종 33)(프랑스는 1896년에 경의선 철도 부설권 획득). 그런데 미국은 이를 2년 뒤인 1898년(광무 2)에 일본에게 팔았다.

오답 해설>

- ① 독일은 1897년(광무 원년)에 (강원도) 당현 금광 채굴권을 획득하였다.
- ② 일본은 1898년(광무 2)에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 ③ 미국은 1896년(고종 33)에 (평북) 운산 금광 채굴권을 획득하였다.
- ④ 러시아는 1896년(고종 33)에 (두만강와 압록강 유역 및) 울릉도의 삼림 채벌권을 획득하였다.

35 - 제2차 갑오개혁

35.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통리기무아문과 12사를 설치하였다.
- ②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 ③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하였다.
- ④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 ⑤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그동안 국정 논의를 주도한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제는 김홍집과 박영효가 주도하는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제1차 갑오개혁이 끝나고(1894.6.25~12.17) 제2차 갑오개혁이 추진됨(1894.12~1895.8)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331군)로 개편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통리기무아문과 12사가 설치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 ③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 ④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 것 역시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
- ⑤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한 것 역시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연론 3사도 폐지).

36 - 헤이그 특사 파견 배경(을사늑약)

36. 밑줄 그은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2점]

독립 유공자 인물 정보

● 유공자 및 포상 정보

성명	이위중
포상 연도	1962
훈격	대통령장

● 주요 활동

1.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어 활동함
2. 연해주에서 결성된 동의회(同義會)의 회장으로서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①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
- ②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부임하였다.
- ③ 외교권이 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 ④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에 사법권을 박탈당하였다.
- 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정답> ③

'독립 유공자 인물 정보'라는 제목 아래 '이위중(1887~?)'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활동으로 '1.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2회)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어 활동'한 것과 '2. 연해주에서 (1908년 4월에) 결성된 동의회(同義會)의 회장으로서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밑줄 친 특사는 곧 헤이그 특사를 가리키는 바 특사가 파견(1907.4)된 배경은 1905년 11월의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으로 인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이 강탈되고, 이듬해 2월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 각국에 호소하고자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헤이그 특사 파견 결과)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되었다(1907.7.20).
- ② 초대 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1852~1919)가 부임한 것은 1910년 8월 한일 병탄 때문이다(1910.8.22).
- ④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에 사법권을 박탈당한 것은 1909년 7월의 일이다(1909.7.12).
- 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1856~1924, 집권 1913-1921)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것은 1918년 1월의 일이다(1918년 1월 8일에 발표한 '14개조 평화 원칙')

37 - 정미의병(13도 창의군)

37.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공립신보

제△△호 ○○○○년 ○○월 ○○일

한국 창의병대가 일본 원정대를 몰살하다

지금 서울 근처 각 지방에 의병이 많이 모여 서울을 치고자 하는 모양인데, 수효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한 곳에는 8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해산된 한국 군인들이 선봉이 되어 기동하는데 곳곳의 철로와 전선을 끊고 일본 순검이나 철로와 전보국의 사무원을 만나는 대로 죽인다 하며 …… 녹도 땅에 의병을 치러 갔던 일본 원정대는 처참하게 몰살되었다고 한다.

1885	1894	1896	1899	1904	1910
(가)	(나)	(다)	(라)	(마)	
거문도 사건	청일 전쟁	아관 파천	대한국 국제 반포	한일 의정서	국권 피탈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⑤

'한국 창의병대가 일본 원정대를 몰살하다'는 제목 아래 '지금 서울 근처 각 지방에 의병이 많이 모여 서울을 치고자 하는 모양인데, 수효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한 곳에는 8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해산된 한국 군인들이 선봉이 되어 기동하는데 곳곳의 철로와 전선을 끊고 일본 순검이나 철로와 전보국의 사무원을 만나는 대로 죽인다 하며 …… 녹도 땅에 의병을 치러 갔던 일본 원정대는 처참하게 몰살되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봉기한 '정미의병'들이 '서울을 치고자' '서울 근처 각 지방에 많이 모여'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자료는, 공립신보 1907년 9월 20일자 기사). 그리고 그 결과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정미의병'들은 1907년 12월에 13도 창의군(창의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을 결성하였고(이때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해산된 군인 3,000명이 포함), 이듬해 1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치게 된다(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부근까지 진격했다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아 후퇴).

제시된 연표에서는 한일 의정서가 체결된 1904년 2월과 국권이 피탈된 1910년 8월 사이인 '(마) 시기'에 해당한다.

38 - 대한민국 임시 정부

38.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 ③ 태극 서관을 운영하며 계몽 서적을 보급하였다.
- ④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 ⑤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였다.

정답> ④

'이 책(한일 관계 사료집)은 (가)이/가 국제 연맹에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기에는 삼국 시대 이후의 한일 관계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일제의 잔혹한 식민통치 방식과 3·1 운동의 전개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임시 정부가 임시 사료 편찬소를 통해 1919년 9월에 편찬).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1919.11).

오답 해설>

- ①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한 단체는 의열단이다(1932.10).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1898~1958)이 중국 국민당과 교섭하여 중국 난징 교외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②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한 단체는 조선어 학회이다(1931.11, 조선어 연구회에서 명칭 변경). 조선어 학회는 1933년 10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또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두고 1935년부터 표준어를 사정하여 이듬해인 1936년 10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하였다.
- ③ 태극 서관을 운영하며 계몽 서적을 보급한 단체는 신민회이다(1908.5).
- ⑤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한 단체는 신간회이다(1929.11).

39 - 부산의 역사적 사실(박재혁)

39.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2·28 민주 운동이 시작되었다.
- ②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③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전개하였다.
- ④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 ⑤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농민들이 소작 쟁의를 벌였다.

정답> ④

'○○시 역사 여행'이라는 제목 아래 '동삼동 패총 전시관'과 '정공단', '백산 기념관', '임시 수도 기념관'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정공단은 임진왜란 초 순절한 부산 첨사 정발(1553~1592)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제단이며 백산 기념관은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제(1885~1943)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이다.

의열단원 박재혁(1895~1921)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벌인 것은 1920년 9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고등학생들이 주도한) 2·28 민주 운동이 시작된 곳은 대구(광역시)이다(1960.2.28).
- ②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서울(특별시)이다(1947.5.21).
- ③ 강주룡(1901~1931)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전개한 곳은 평양이다(1931.5.28).
- ⑤ 지주 문재철의 횡포에 맞서 농민들이 소작 쟁의를 벌인 곳은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딸린 섬, 암태도이다(1923.8~1924.8, 암태도 소작 쟁의).

40 - 천도교

40. (가) 종교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 ②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③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④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⑤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 계몽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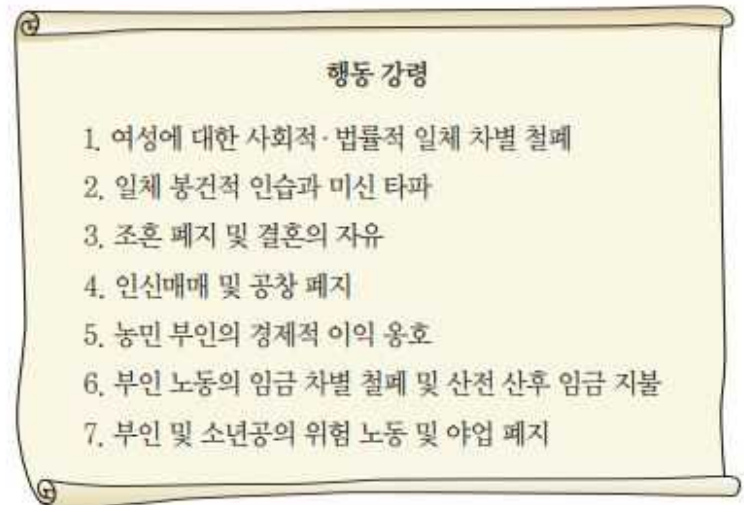
왼쪽 말풍선에 '(가)에서 설립한 출판사인 개벽사는 다양한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 중에 별건곤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별건곤은 개벽이 일제에 의해 폐간된 후 발간된 월간지로, 취미(와 실익을 위주로 한 대중) 잡지임을 표방했으나 시사 문제를 실어 기사가 삭제되기도 했다'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천도교임을 알 수 있다. 개벽이 창간된 것은 1920년 6월이고, 별건곤이 창간된 것은 1926년 11월이다(개벽이 강제 폐간된 것은 1926년 8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 운동을 추진한 종교 단체 역시 천도교이다(천도교 소년회, 1921.5). 참고로 천도교에서 잡지 어린이를 발간한 것은 1923년 3월, 신여성을 발간한 것은 1923년 9월이다.

오답 해설>

- ① 박중빈(1891~1943)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펼친 종교 단체는 원불교이다(1916.4).
- ②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한 종교 단체는 대종교이다. 대종교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인 중광단이 만주의 간도 지역에서 결성된 것은 1911년 3월의 일이다.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가 되었다.
- ③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한 종교 단체는 개신교(북감리교)이다(1885.8).
- ⑤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 계몽을 위해 노력한 종교 단체는 천주교이다(1906.10).

41 - 근우회

41.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② 상하이에서 대동 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③ 여성 교육을 위해 이화 학당을 설립하였다.
- ④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하였다.
- 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연합하였다.

정답> ⑤

'행동 강령'이라는 제목 아래 '1.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2.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3.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4.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 5.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6.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 지불, 7.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 노동 및 야업 폐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강령)은 1920년대 대표적인 여성 운동 단체인 근우회의 행동 강령임을 짐작할 수 있다(1927년 5월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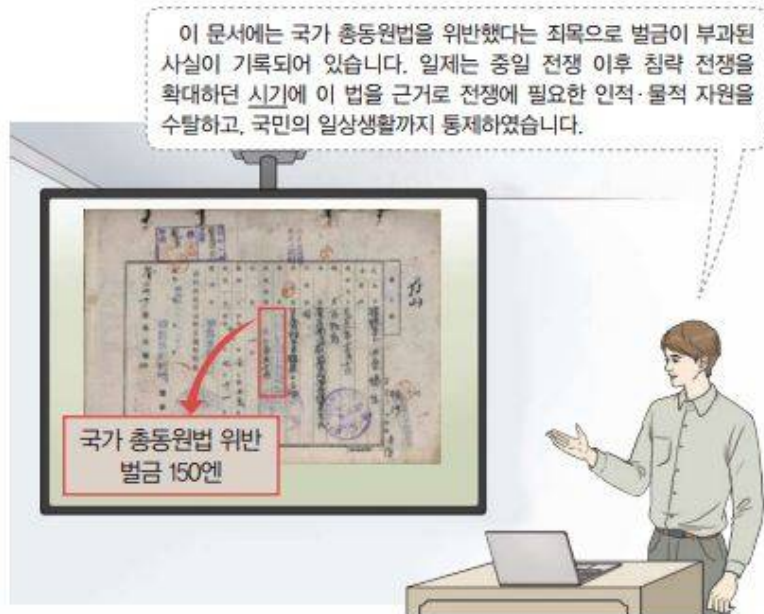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오답 해설>

- ①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를 굳이 들자면 '종교계'를 들 수 있다. 손병희와 권동진 등 천도교 측이 15명, 이승훈과 길선주 등 기독교 측이 16명, 한용운과 백용성 등 불교 측 2명이 기미 독립 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였다.
- ② 중국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17년 7월의 일이다. 신규식, 신체호, 조소앙 등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문에는 '주권 재민 사상'이 담겨 있다["윙희 황제가 삼보(三寶)*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날이니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대동단결 선언문은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652호로 지정되었다
* 삼보(三寶) : 토지, 인민, 정치
- ③ 이화 학당이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에 의해) 설립된 것은 1886년 5월의 일이다.
- ④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공표된 것은 1898년 9월의 일이다(1898.9.1).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 명의 여성들이 찬동해 이루어졌다(찬양회).

42 - 일제 강점기 말의 모습

42.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 ② 조선 태형령 실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직원
- ③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탄압받는 한글 학자
- ④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는 교사
- ⑤ 경성 제국 대학 설립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 총독부 관리

정답> ③

'이 문서에는 국가 총동원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이 법을 근거로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 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국가 총동원법은 1938년 4월 1일 공포되어 그 해 5월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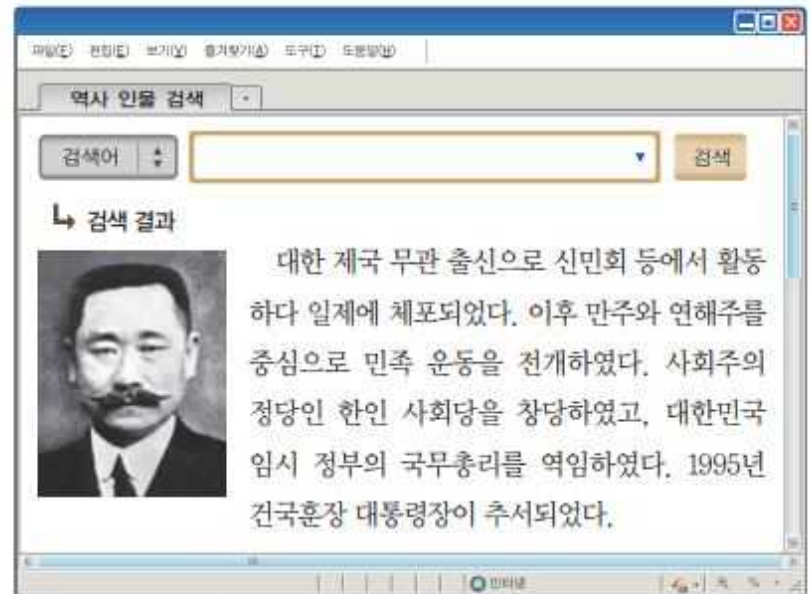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42년 10월의 일이다. 1945년 1월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공판에 넘어간 12명 중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7명은 석방되고, 5명은 다시 수감 생활에 들어갔다. 5인 중 정태진은 같은 해 7월에 출옥하고 나머지 4인(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8·15 광복을 이틀 앞둔 8월 13일 기각되었다. 이들 4인은 8월 17일에 출소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난 것은 1929년 1월의 일이다(~4월까지 진행).
- ② 조선 태형령이 실시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1920년 3월 31일 폐기).
- ④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창립된 것은 1922년 11월이고, 창립 총회가 개최된 것은 이듬해인 1923년 3월의 일이다.
- ⑤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43 - 성재 이동휘

43.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 ② 연안에서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였다.
- ③ 민족 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 ④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⑤ 의열단의 활동 강령인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정답> ①

'대한 제국 무관 출신으로 신민회 등에서 활동하다 일제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후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 사회당을 창당하였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성재 이동휘(1873~1935)임을 알 수 있다.

이동휘는 이상설과 함께 1914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종의 망명 정부인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이상설이 대한 광복군 정도령(正都領), 이동휘가 부도령].

오답 해설>

- ② 연안에서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한 주요 인물로는 백연 김두봉(1889~1960)이 있다(1942.7).
- ③ 민족 교육을 위해 [북간도(용정)에서] 서전서숙을 설립한 인물은 보재 이상설(1870~1917)이다(1906.8).
- ④ 고종의 밀지를 받아 (대한)독립 의군부를 조직한 인물은 돈헌 임병찬(1851~1916)이다(1912.9).
- ⑤ 의열단의 활동 강령인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한 인물은 단재 신채호(1880~1936)이다(1923.1).

44 - (고려인) 강제 이주

4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백 명은 북로 사령부 소재지인 봉오동을 향해 행군하다가 적군 3백 명을 발견하였다. 아군을 지휘하는 홍범도, 최진동 두 장군은 즉시 적을 공격하여 120여 명을 살상하고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였다.

-『독립신문』-

(나) 조선 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등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과 합세하였다. …… 아군은 승세를 몰아 적들을 30여 리 정도 추격한 끝에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다.

-『광복』-

- ① 자유시 참변 이후 3부가 조직되었다.
- ②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하였다.
- ③ 독립군 연합 부대가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 ④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고자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⑤ 스탈린에 의해 많은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정답> ⑤

(가)에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백 명은 북로 사령부 소재지인 봉오동을 향해 행군하다가 적군 3백 명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군을 지휘하는 홍범도, 최진동 두 장군은 즉시 적을 공격하여 120여 명을 살상하고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홍범도(1868~1943)의 대한 독립군, 최진동(1882~1941)의 군무 도독부 등의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을 섬멸한 봉오동 전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20.6).

(나)에는 '조선 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등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과 합세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군은 승세를 몰아 적들을 30여 리 정도 추격한 끝에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32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개된 영릉가 전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수상, 대원수)] 스탈린(1879~1953)에 의해 많은 한인('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것은 1937년 9월부터이다(약 17만여 명이 순차적으로 강제 이주).

오답 해설>

- 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것은 1921년 6월이고, 3부가 조직된 것은 1924년 6월에서 1925년 3월 사이이다(1924년 6월 참의부, 1924년 11월 정의부, 1925년 3월 신민부 조직).
- ②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의 패배에 대한)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한 것은 1920년 10월의 일이다(~1921.4).
- ③ 독립군 연합 부대가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1920년 10월의 일이다(청산리 대첩).
- ④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고자 미쓰야 협정을 체결한 것은 1925년 6월의 일이다. 미쓰야 협정이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1880~1959)와 중국 동삼성[만주]의 군벌인 장쥘린(1873~1928)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만주에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면 이를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넘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45 - 한국 광복군

45.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승무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②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③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 ④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 ⑤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정답> ④

'이곳은 독립운동가 조성환(1875~1948)이 태어난 여주의 보통리 고택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1940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가) 창설을 주도하고, 군무 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가옥은 그의 아버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하였다고 전해지며, 국가 민속 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1940년 9월 17일 중화민국의 임시 수도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 광복군(총사령부)임을 알 수 있다.

한국 광복군은 1945년에 이르러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승무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지역은 미주의 멕시코(유카탄의 메리다 지역)이다(1910.11). 지역회 한인 회장 이근영(?~?)의 주도로 수십 명의 한인 청년을 모아 사관(士官)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 ②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한 군대는 한국 독립군(지청천 총사령)이다(1932.9/1932.11).
- ③ 중국 팔로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한 군대는 조선 의용대(화북 지대)이다(1941.12). 호가장은 중국 하북성 태항산 줄기에 닿는 작은 마을이다.
- ⑤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 의용대이다(1938.10).

*관내를 관중(關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국 본토 지역을 가리킨다(만주, 즉 동북 3성은 관외). 예전 진(秦)나라 때 수도인 장안 일대 주변에 4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에서 연유한다.

46 - 허정 과도 정부 수립(4·19 혁명)

46.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역사 속
오늘

4월 11일



오늘은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 그가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①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 ②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③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 ④ 귀속 재산 관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 ⑤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정답> ③

'역사 속 오늘'이라는 제목 아래 '4월 11일'이 제시되어 있다. '오늘은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실종되었던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사망이 확인된 날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가 눈에 최루탄을 맞은 상태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60년 3·15 부정 선거(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 항의하다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1943~1960) 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4·19 혁명이 일어났다.

이승만의 하야로 허정(1896~1988)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1960.4.27~6.15).

오답 해설>

- ① 조봉암(1898~1959)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된 것은 1956년 11월의 일이다(~1958.2).
- ②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
- ④ 귀속 재산 관리를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된 것은 1946년 3월의 일이다(~1948.3).
- ⑤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위해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1952년 7월의 일이다(1952.7.4, 같은 해 7월 7일 공포, 제1차 개헌이자 '발췌 개헌'). 이승만은 이를 통해 같은 해 8월 5일에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47 - 부마 민주 항쟁

47. 다음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시사만화로 보는 현대사



이 만화는 민생고 해결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과잉 진압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가발 생산 공장의 여성 노동자 180여 명이 업주의 폐업 조치에 맞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자, 1천여 명의 무장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YH 무역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 ①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 ②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출범하였다.
- ④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⑤ 전태일이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정답> ①

'시사만화로 보는 현대사'라는 제목 아래 '이 만화는 민생고 해결을 외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과잉 진압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김성환 화백의 시사만화 '고바우영감', 동아일보 1979년 8월 13일자). 이어 '가발 생산 공장의 여성 노동자 180여 명이 업주의 폐업 조치에 맞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하자, 1천여 명의 무장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YH 무역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YH 무역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박정희 정부 말기로, 1979년 8월의 일이다(1979.8.9~11).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난 것은 1979년 10월 16일의 일이다(~20일).

오답 해설>

- ②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76년 3월의 일이다.
- ③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출범한 것은 제3차 개헌 때의 일이다(1960.6). 이때 내각 책임제(의원 내각제)가 채택되었다.
- ④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64년 6월의 일이다.
- ⑤ 전태일(1948~1970)이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서울 평화시장에서) 분신한 것은 1970년 11월의 일이다(1970.11.13).

48 - 전두환 정부 시기의 모습

48. (가)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를 취재하는 기자
- ② 개성 공단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정부 관료
- ③ 금강호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단체 여행객
-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외교부 당국자
- ⑤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북 고향 방문단

정답> ⑤

'사진으로 보는 (가) 정부'라는 제목 아래 '프로 야구 6개 구단 창단', '언론 통제 보도 지침',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제시되어 있다. 프로 야구 6개 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어 우리나라에서 프로 야구가 시작된 것은 1982년 3월 27일의 일이다. 또 언론 통제 보도 지침이 있었던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각 언론사에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86년 9월, 당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발행하던 월간 『말』지를 통해 알려졌다(일명 '보도지침 사건').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린 것은 1987년 6월 10일이다(6월 민주 항쟁, 정식 대회 명칭은 '6·10 박종철 군 고문 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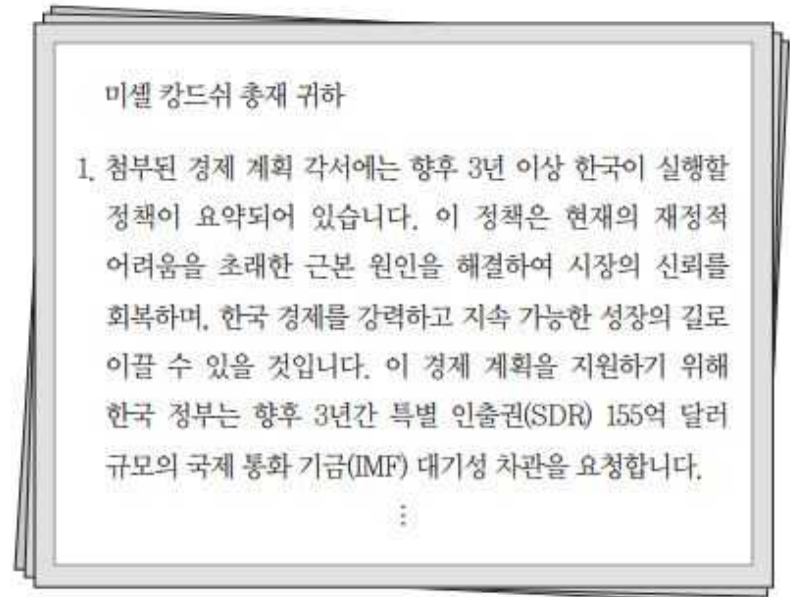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3). 당시 50명 규모였으며, 예술 공연단도 (남북으로)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오답 해설>

- ①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1972.7).
- ② 개성 공단 착공식이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이다(2003.6.30).
- ③ 금강산 해로 관광이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일이다(1998.11.19,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처음 출항). 참고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9월부터 금강산 육로 관광이 개시되면서 해로 관광은 2004년 1월에 중단되었다.
-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문이 발표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이다(1991.12.31).

49 - 노사정 위원회 구성

49. 다음 문서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 ②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 ③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 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정답> ⑤

'미셸 칸드쉬 총재 귀하'라는 제목 아래 '1. 첨부된 경제 계획 각서에는 향후 3년 이상 한국이 실행할 정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한국 경제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경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향후 3년간 특별 인출권(SDR) 155억 달러 규모의 국제 통화 기금(IMF) 대기성 차관을 요청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문서)는 김영삼 정부 말기 외환 위기의 발생으로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사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1997.12.3). 참고로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8월 23일에 IMF 관리 체제가 종료[채무 조기 상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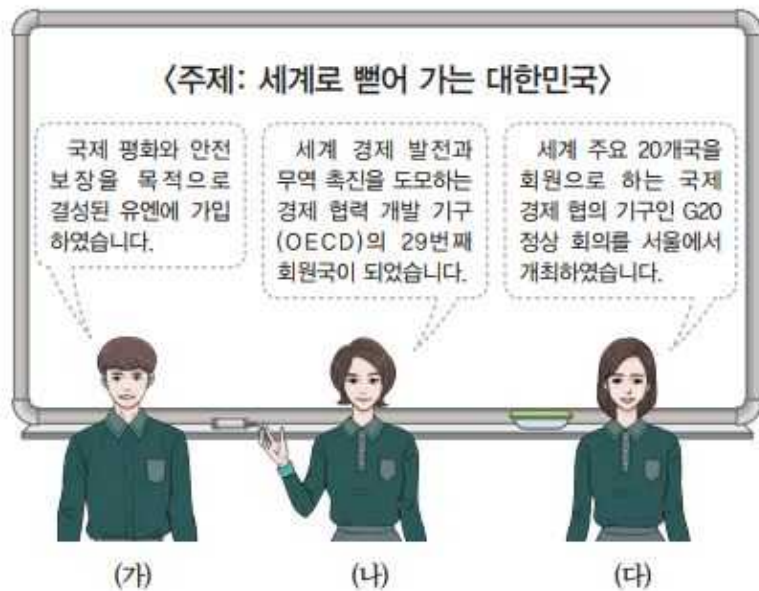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98년 1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11월의 일이다.
- ②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던 시기는 전두환 정부 말기와 노태우 정부 초기이다(1986~1988).
- ③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된 것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8년 10월의 일이다.
-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50 - 대한민국의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회의 개최

50.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점]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가) - (나)

정답> ①

'세계로 뻗어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맨왼쪽 말풍선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에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사실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1991.9.18, 제46차 유엔 총회).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세계 경제 발전과 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로, 1996년 12월의 일이다(1996.12.12).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 경제 협의 기구인 G20 정상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1월의 일이다(2010.11.11~12).

이상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다)'가 된다.

- 이 상 -